# 제5강 왕충王充

◇개요: 왕충(王充, 27~100?)은 앞에서 다룬 알튀세르와 너무나 유사한 사유를 전개했던 중국철학자입니다. 그는 세계가 우발성을 갖는다는 점을 진지하게 성찰했기 때문이지요. 왕충은 '의도나 목적'을 의미하는 '고[故]'을 '마주침'을 상징하는 '행(幸)'이나 '우(遇)' 개념과 대비시킵니다. 여덟 번째 주에 읽을 텍스트는 바로 왕충의 주저, 『논형(論衡)』으로 정했습니다. 알튀세르와 비교하면 재미있는 생각이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키워드: 목적론, 필연성, 우발성, 고(故), 우(遇), 행(幸)

## 1. 왕충의 삶

1. 할아버지 왕범(王汎), 큰아버지 왕몽(王蒙), 그리고 아버지 왕송(王誦)은 모두 협객의 삶을 살았다.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 그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는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 왕충의 할아버지 등에게 맞거나 죽은 사람들은 대개 호족(豪族)의 비호를 받던 사람들이었다. 왕충의 할아버지나 큰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자주 이사를 다닌 것도 자신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느꼈던 호족들의 유언무언의 압력 때문이었다. 그 와중에 왕충은 AD 27년에 회계(會稽) 상우(上虞)현에서 태어난다. 어렸을 때 왕충은 할아버지나 큰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는 달랐다. 동네 아이들과 놀면서 왕충은 한 번도 그들을 무시하거나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 글을 배우기 시작한 6살 이후에 왕충은 아버지와 어머니, 서당 선생으로부터 매질이나 꾸지람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표면적으로 왕충은 자신의 가족들의 협객적 삶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그는 무(武)의 협객이 아니라, 문(文)의 협객을 지향했던 것이다.

2. AD 44년 18세의 나이로 왕충은 낙양(洛陽)의 태학(太學)으로 공부하러 상경한다. 이곳에서 『논어(論語)』나 『상서(尙書)』와 같은 유학 경전들을 배웠는데, 왕충은 하루에 1,000자를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영민했다고 한다. AD 47년 21세의 왕충은 태학과 스승을 떠나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그가 유학 사상으로부터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으로 왕충은 자신이 원하던 책을 구할 수가 없어서, 낙양(洛陽)의 서점가를 배회하며 닥치는 대로 글을 읽게 된다. 서점가에서 그는 제자백가(諸子百家)와 과학과 관련된 텍스트들을 읽고 정리하기 시작한다. 유학의 포함한 다양한 사상들을 어떤 편견도 없이 독서한 결과, 왕충의 철학적 안목은 넓고 깊어졌다. 기록에 따르면 왕충과 만났던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몹시 당혹스러워했다고 한다. 그의 생각은 통념과는 너무 어긋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충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그들은 모두 왕충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수긍했다고 한다.

3. 왕충도 근본적으로 협객이었지만, 무(武)의 협객이 아니라 문(文)의 협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분명 왕충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협객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그들의 의협심은 자신들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었다. 왕충이 관료로 임용되려고 노력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권력을 가지고 있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을 때에만 부정의와 맞서려는 자신의 뜻을 효과적으로 펼 수 있는 법이니까. 그러나 고위직에 오르려는 왕충의 뜻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지방 관료로 있을 때 왕충은 민중들의 궁핍한 삶을 개선하려고 수차례 태수에게 진언하지만 그의 생각은 채택되지 않는다. AD 76년 왕충은 그의 나이 51세에 모든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낙향하게 된다. 그는 정치권력을 넘어서 부정의하고 부조리한 인간의 사유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데 자신의 남은 힘을 집중하기 시작한다. 치열했던 그의 사유 흔적은 지금 『논형(論衡)』이란 방대한 책으로 전해지고 있다.

## 2. 『논형』 훔쳐보기

1. 사람이 관직에 나서는 것은 봉록을 탐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예의의 말로는 도를 행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사람이 장가드는 것은 욕망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예의의 말로는 어버이를 봉양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 관직에 나가면서 노골적으로 먹을 것을 이야기하고 장가들 때 노골적으로 욕망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공자의 말은 자신의 실정을 그대로 드러내어 숨기려는 생각이 없으며 의리(義理)의 이름을 빌리지도 않는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지 군자는 아니다. 유학자들은 공자가 천하를 주유하면서 초빙에 응하고자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자 도(道)가 행해지지 않음을 안타까워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공자의 실정을 놓친 것이다.-『논형』「문공(問孔)」

2. 유학자들은 하늘과 땅이 '의도를 가지고[故]' 인간을 낳았다고 하지만, 이 말은 허황된 것이다. 대체로 하늘과 땅이 기(氣)를 합할 때, 인간은 '우발적으로[偶]'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그것은 부부가 기를 합할 때 자녀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부부가 기를 합하는 것은 당시에 자녀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욕이 발동하여 합한 것이며 합한 결과 자녀를 낳은 것이다. 부부가 '의도를 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하늘과 땅이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낳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대체로 하늘이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낳을 수 없다면, 하늘이 만물을 낳은 것 역시 '의도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늘과 땅이 기를 합하면 만물이 '우발적으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일 뿐이다.-『논형』「물세(物勢)」

3. 땅강아지와 개미가 땅 위를 기어갈 때 사람이 발로 밟고 지나간다. 발에 밟힌 땅강아지와 개미는 눌려 죽고, 발에 밟히지 않은 것은 다치지 않고 온전히 살아남는다. 들풀에 불이 붙었을 때 마차가 지난 곳은 불이 붙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며 행초(幸草)라고 부르기도 한다. 발에 밟히지 않는 것, 불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라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우연히 불이 붙었고, 사람이 길을 가다가 때맞게 그렇게 된 것이다. (…) 거미가 줄을 쳐두면 날벌레가 지나가다 벗어나는 것도 있고 잡히는 것도 있다. 사냥꾼이 그물을 쳐놓으면 짐승들이 떼 지어 달리다가 잡히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한다. 어부가 강이나 호수의 고기를 그물질하다 보면 잡히는 것도 있고 빠져나가는 것도 있다. 간교한 도적이 큰 죄를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지었어도 발각되지 않기도 하고 작은 죄를 돈으로 면제 받으려다가 발각되는 경우도 있다.-『논형』「행우(幸偶)」

4. ‘마주친다[遇]’는 것은, 능력을 미리 닦아 두는 것도 아니고 유세할 내용을 미리 갖추어 두는 것도 아니지만 군주의 마음에 우연히 맞게 되기 때문에, ‘마주친다’고 한 것이다. 만약 군주의 마음을 헤아려 유세할 내용을 조절하여 존귀한 지위를 얻었다면, 이것은 ‘잰다[揣]’라고 하지, ‘마주친다’고 하지는 않는다. 봄에 종자를 심고 곡식이 자라나면 가을에 수확하여 곡식을 거두는 경우나, 어떤 것을 구해서 그것을 얻고 일을 해서 그것이 완수되는 경우는 ‘마주친다’고 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이르고 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저절로 완수되어야 ‘마주친다’고 이야기한다. (…)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마주친다’와 ‘마주치지 않는다’라는 논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데도, ‘마주친’ 경우에 대해 그것을 칭송하고 ‘마주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그것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드러난 결과에 근거한 것이며 이미 이루어진 일을 판단한 것이지, 이것으로는 그 사람의 행실과 재능을 헤아릴 수 없는 법이다.『논형』「봉우(逢遇)」

5.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 지각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개별자들로 검증해보다면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고 지각도 없어서 사람을 해칠 수가 없다. 무엇으로 그것을 검증할 수 있을까? 동물로 검증하면 된다. 사람도 개별자고 동물도 또한 개별자이다. 동물은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는데, 사람만이 죽어서 귀신이 될 수 있겠는가? (…)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정기(精氣) 때문이다. 사람이 죽으면 정기는 소멸한다. 정기가 되는 것은 혈맥이다. 사람이 죽으면 혈맥이 마르고, 혈맥이 마르면 정기가 소멸하며, 정기가 소멸하면 육체가 썩고, 육체가 썩으면 재와 같은 흙이 된다. 어찌 귀신이 되겠는가?『논형』「논사(論死)」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